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에 의한 생산비 절감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통정보의 적극적인 파악을 통한 경영 수익성 향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컴퓨터는 경영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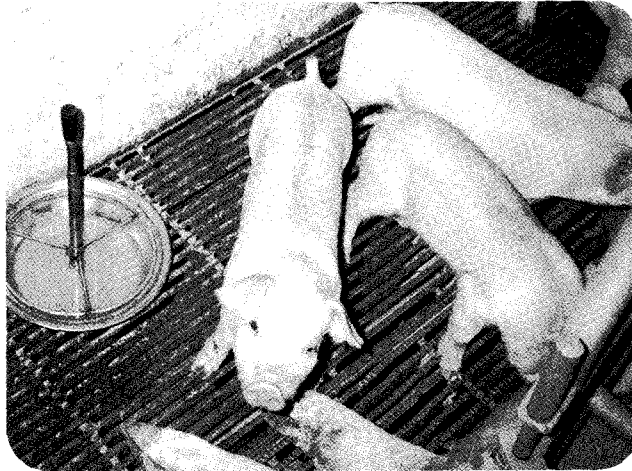
미국 양돈농가의 경우 50%정도가 컴퓨터를 보유, 농장경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산과 경영에 관한 자료를 기록 및 분석하고 있다고 하며 이들 농가들이 전체 돼지 생산의 8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경영 능력과 컴퓨터는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고 있다.

양돈경영에 있어서 컴퓨터의 활용분야는 크게 보면 첫째, 개체 또는 사양관리, 번식관리, 생산성관리, 사료설계, 위생관리 분야로 이를 통해 효율적 생산관리가 가능하고 원가절감은 물론 생산예측이 가능해져 체계적 유통을 구현해낼 수 있다. 실제로 피그플랜이란 양돈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개체별 사양관리가 가능하여 언제 교배를 하고 분만해야 할지, 어떤 개체에 백신을 주사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자료가 축적되면 최소한 6개월 후의 생산량과 수익까지 예측할 수 있어 효과적 거래처 관리

가 이루어진다. 이는 돼지값의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되어 효율적 경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영관리분야로 원료구입 및 재고관리, 생산성분석, 급여관리, 회계관리, 경영계획 수립 등이 해당되는데 많은 양돈농가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경영관리를 하지 못해 장부정리를 포기하거나 단순 수입 지출관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돈농가의 규모가 점

점 확대되고 시설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은 눈을 감고 밤길을 걷는 우매함에 비할 수 있다. “경영도 생산이다”는 말처럼 계획성 있는 경영관리는 새고 있는 지출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면밀한 농장



분석을 통해 년단위 경영계획을 세워낼 수 있다.

셋째, 종돈농장의 생산관리, 경영관리, 종돈의 유전자질분석, 육종계획수립 등 육종 및 종돈관리 분야이다. 돼지의 경우 종돈을 통한 후대검증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은 발달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현장에서 구현하여 효과적 생산을 이뤄내는 농장은 많지 못하다. 도드람중부양돈축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체계적인 품종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여 브랜드화에 성공하고 있는 예처럼 정보



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농업현장의 효과는 참으로 크다.

넷째, 정보·통신분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정보교류 등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칠곡 토종홍화씨농장의 배문열 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생산한 생산품을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수출하고 있으며, 많은 농가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홍보는 물론 판매까지 구현하고 있지만 아직 양돈농가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양돈은 앞에서 언급했듯 체계적 경영 관리와 생산관리를 이뤄낸다면 생산의 장기적 예측과 품질수준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지므로 어느 작목보다 인터넷 마케팅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농장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양돈 농가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먼저 정보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한다. 자신의 농장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경영상태는 어떠한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자. 정보는 이러한 물음을 밝혀줄 등대가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의지가 섰다면 지금부터 당장 컴퓨터와 친해지자. 컴퓨터보급율은 선진국을 따라잡아 간다지만 자녀교육용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가의 컴퓨터를 양돈인 스스로 친숙해져야 한다. 필자는 양돈농장 관리프로그램 교육 차 농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양돈인들이 컴퓨터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그럴 때 마다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한다. "컴퓨터는 쉼 줄 알면 반을, 거기가 끝 줄만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자판을 두들겨보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물건도 구입해보는 게 어떨까? 필자가 다녀본 한 농가의 농민은 환갑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자판을 눌러가면서 이메일도 만들어보고 여기저기 검색을 하면서 인터넷쇼핑까지 하고 있었다. 필자가 다녀간 뒤로

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농업정보화의 희망으로 해석되어졌다.

컴퓨터가 켜진다면 양돈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보자. 바쁘게 살아가는 양돈인에게 생산현장과 괴리된 온갖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터이므로 가장 절실한 양돈관리부터 컴퓨터를 활용해보자.

처음에는 기존의 종이방식이 쉬워 보여도 1주일만 노력한다면 무릎을 칠 것이다. 이렇게 한두 달 6개월 정도 정보를 쌓아간다면 생산관리는 물론 수익예측, 경영설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뿐이겠는가? 앞으로 농산물도 인터넷상에서 유통업체나 식자재회사들과 대규모의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흐름에 대비해서 컴퓨터활용능력 향상과 생산경영정보화는 반드시 농업인이 갖춰야할 기본 지식이 되고 있다. **양돈**

자녀교육용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가의 컴퓨터를 양돈인 스스로 친숙해져야 한다. 필자는 양돈농장 관리프로그램 교육 차 농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양돈인들이 컴퓨터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그럴 때 마다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한다. "컴퓨터는 쉼 줄 알면 반을, 거기가 끝 줄만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